

변화무쌍 무대 ... 상상하면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최적화 공연 공모 사업을 앞두고 22일 예술극장 1에서 기술 시연회가 열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1' 최적화 공연 공모 시연회 서울 등서 200여명 참석 ... 11월 접수 "독특한 무대 매카니즘 매력적인 공연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 극장 1은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형식의 공연장이다. 지난해 열린 예술극장 개관 페스티벌부터 지금까지 극장 1에서 공연된 작품을 볼 때마다 "이제 같은 극장 만나" 싶어질 정도로 변화무쌍한 공간 연출이 인상적이다.

상절리제 오케스트라 공연은 사면에 객석을 놓고 가운데 무대를 둔 아레나 형식의 공연이었고, 차이밍량의 '당나라 승려'는 공연장 밖 광장까지 무대로 활용하는 색다른 시도로 눈길을 끌었다. 객석 규모도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했다.

다른 어떤 곳에도 없는 독특한 극장의 특징을 살린 작품은 예술극장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ACC 예술극장 최적화 공연 공모 사업을 진행한 다. 극장 구조와 시스템에 '딱 맞는' 공연을 발굴·제작해 국내외 콘텐츠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지난 22일 극장 1에서는 극장 기술 시연회와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정식 공모를 앞두고 광주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극장1(32m×56m×15m)이 지난 첨단 기술 시스템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전당 측은 2월에는 지역 예술인들만을 초청, 극장 기술 시연회를 갖

기도 했다.

어둠 속에서 웅장한 음악과 함께 현란한 조명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무대 위에 등장한 비보이 그룹이 열정적인 몸짓을 선보이는 동안 조명과 세트막 등을 설치할 수 있는 48개의 장치 결이 춤을 추듯 움직인다.

3m 높이에서 시작된 공연은 마지막 부분에서는 무대가 바닥까지 내려와 객석과 무대의 경계가 사라졌다. 위아래 오르내릴이 가능한 '리프트형 바닥'의 감정이 돋보이는 순간이었다. 하이라이트는 객석 뒷쪽 '빅도어'가 열리는 장면이었다. 가로 30m, 세로 14m 크기의 대형 도어가 서서히 열리며 야외 광장이 드러나자 작은 탄성도 일었다.

1120석 규모의 공연장은 가벽을 활용해 2~3개 공간으로 나뉘 쓸 수 있고 빅도어를 열면 객석은 1800석까지 늘어나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한다.

무대도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활용

이 가능하다. 객석 앞 정면에 무대를 설치한 '프로시니엄' 형태를 비롯해 무대가 객석 사이에 설치돼 패션쇼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로드형, 아레나형 등 작품 특성에 따라 무대의 위치와 형태가 변한다. 또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없앨 수도 있다.

이날 시연회에는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서울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다.

"오늘 둘러본 예술극장 시스템은 작품 제작자에게 흥미롭다. 연출자가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큰 매력인 것 같다. 함께 온 동료들끼리 극장이 '많은 속제'를 안겨줬다고 이야기했다. 예술극장에서만 가능한 무대 매카니즘을 적극 활용에 작품을 제작하고 싶다."

공모 참가 전 극장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에서 참석했다는 연출가 홍상진씨는 "예술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이 제작돼 그 작품이 이슈화 되고, 극장도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무대 미술을 전공하고 프랑스에서 서커스 등을 주제로 박사 과정을 수료한 (주)리치 이미지 대표 이지씨는 "서커스와 아크로바틱, 무용과 뮤지컬 요소가 어우러진 작품을 만드는 나에게 최상의 작업환경"이라며 기대감을 표실했다.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작품이라 국내에서는 공연장을 찾기 어려웠다. 천장이 굉장히 높아 공중과 지상을 동시에 쓰는 작품에 유용한 공간이다.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 건 작품 성격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음향 시설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이 역시 작품에 따라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정승재 공연사업 팀장은 "극장 특성을 최대한 활용,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마음껏 발산되길 바란다"며 "공연계에 '공정적 논란'을 일으키는, 예전에 없던 형태의 작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모 접수 기간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3팀을 선정해 제작비 최대 1500만원과 레지던시 공간을 제공한다. 이후 2017년 3월 1팀을 선정, 12월 시범 공연을 제작하며 2018년 5월 정식 무대를 갖는다. 문의 062-601-461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갤러리 28일~8월 23일 'the BLUE' 전시

아트 : 바캉스



송필용 작 '폭포는 언제나 곧다'

뜨거운 여름을 맞아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푸르른 물을 만날 수 있는 '아트바캉스 the BLUE' 전시를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송필용, 이이남, 임창민 작가가 참여해 미디어 영상, 회화 등 작품 13점을 선보인다. 우리 선조들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을 정신 세계 밑바탕으로 삼았다. 전시에서도 물을 단순히 자연 일부가 아닌 우리 삶의 근원이자 우주 원리를 설명하는 상징물로 바라보는 작가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송필용 작가는 작품 '폭포는 언제나 곧다' 속 시원하게 펼쳐지는 붓질을 통해 물의 에너지를 보여준다. 바위에 부딪치며 만들어진 물보라,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줄기는 시각 뿐 아니라 청각까지도 자극한다.

이이남 작가가 선보이는 '박연폭포' 영상작품은 산에서 시작한 폭포가 강을 만들고 바다로 흘러가는 모습을 담았다. 자연의 순환 뿐 아니라 삶의 종착지가 어디로 향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떠올리게 한다.

계명대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임창민 작가는 창문 밖 조용히 흔들리는 물결 영상과 기차, 호텔 등 익숙한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대비시킨다. 영상작품이 사실 세계를 표현했다면 사진 속 정지된 풍경들은 인간 내면을 형성화했다. 문의 062-360-1271.

/김희화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의 다섯 가지 매력 '오매 광주' 발간



광주의 다섯 가지 매력을 담은 광주여행의 지침서 '오매 광주'가 발간됐다. 광주시는 외지인은 물론 광주시민도 즐길 수 있도록 광주의 맛·흥·멋·정·어를

림을 '오매 멋지네', '오매 맛있네', '오매 깨끗하네', '오매 편안하네', '오매 반갑하네' 등 다섯 가지 매력으로 엮어 관광 안내 책자 '오매 광주'에 담았다.

먼저, 오매 멋지네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양림동역사문화마을, 양동발산정춘마을, 1913송정역시장, 광주폴리, 소촌

아트팩토리 등을 소개했다. 오매 맛있네는 남도한정식, 오리탕, 보리밥, 광주의 별미 상추튀김, 식사 후 카페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동명동 카페거리와 무등산 카페촌을 소개했다. 오매 즐겁네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아트피크닉, 광주물총축제, 광주세계청년축제, 추억의 7080 총장로축제 등을 소개했다. 오매 편안하네는 넉넉한 인심과 깨끗한 자연의 광주로 무등산국립공원, 월봉서원, 광주향교, 식영정, 환벽당 등 누정문화와 체험을 소개했다.

오매 반갑네는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도심어항정보 등 국제도시 광주를 소개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나라사랑 콘서트 '민중의 불꽃' ... 31일 광주문예회관

광복절 기념 제3회 나라사랑 콘서트 '민중의 불꽃'이 오는 3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광주지방보훈청이 주최하고 광주국악협회(회장 최상진)가 주관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선보인다.

첫번째 무대는 순국 선열의 넋을 위로하는 '씻김굿'이 장식하며 동학농민군과 전봉준 장군의 업적을 창작판소리와 무용으로 풀어낸 '새야 새야 파랑새야'가 이어

진다. 또 흥겨운 사물놀이 '새로운 꿈을 위한 신바람'이 관객들의 흥을 돋운다.

이어 부채춤과 강강술래가 펼쳐지며 항일 투쟁 영웅들의 이야기를 엮은 창작 판소리 '열사가'가 무대를 장식한다. 피날레 무대는 '나랑 사랑 아리랑'으로 국악과 양악의 신명난 리듬이 함께하는 가·무·악 형태의 종합예술작품이다. 전석 무료. 문의 062-524-83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400여점 전시

산업환경기기 & 기계부품 제조전문업체

최고를 지향하는 친환경기업

YHB ECO

창사 29주년

www.yhb.co.kr

YHB 이동식 에어컨

조리작업장/주방/산업현장 작업효율 증대!!
체감온도를 낮춰 최적의 작업환경 보장!!

▶쾌적하고 깨끗한 작업공간 연출
▶실내·외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
▶이동이 용이한 바퀴 형태
▶고온 및 습기에 강력

전국 50개 지점망 이용 24시간 내 A/S

대한민국 우수중소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기념 특별가 공급

전국 각 지역 지점/대리점 모집

필터 교체가 필요없는 집진기

YHB (주)YHB ECO / 주식회사 YHB / (주)YHB 토달서비스

본사 및 영업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 12차 501호 ☎ 02-2029-6400 / FAX 02-2029-6404
광주 공장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74(오선동) ☎ 062-952-6633 **익산공장**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1(용제동) ☎ 063-835-4771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shh@yhb.co.kr / eco6400@hanmail.net